

2018-4기 전공심화 `연구 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 목적

전공심화 연구 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강좌를 개설해 자신의 관심분야를 미리 접해보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차원 높은 잠재능력을 발휘해보는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해보고자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현행 운영방식과 문제점

- 현행 강좌 개설 방식은 프로그램 공개 전 학생들의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진행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다수가 희망하는 대주제를 선정함.
- 이후 해당 대주제와 관련이 있는 인근 대학 학과 사무실과 개별 접촉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교사 및 본교 교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거나, 본교에 출강중인 강사를 통해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업 주제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형태로 집계하기 어렵거나, 교사의 전공/관심분야와 동떨어져 있거나, 학생들이 희망함에도 기존 개설 주제들과 겹침이 없는 신규 주제의 경우 개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되어 궁극적으로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강좌를 개설해 자신의 관심분야를 미리 접해’ 보는 프로그램의 개설 목적과 거리가 생기고 있음.

□ 2018-4기 전공심화 연구 프로그램 변경 운영방식(안)

| 기존 방식 | 2018-4기 변경 방식(안) |
|----------------|-------------------------------------|
| 위의 설명한 내용과 같음. | 기존 방식 |
| | + |
| | 학생 희망주제 신청서 접수 및 인근 대학 학과사무실에 발송 |

- 2018-4기 전공심화 연구 프로그램 변경 방식은 기존 강좌 개설 방식과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신청 받는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려 함.
- 신규 방식은 대표학생이 지정된 기간 사이에 수강하기 희망하는 주제와 내용에 대해 작성한 뒤, 같은 주제에 흥미를 가진 최소 10명의 학생의 명단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함.
- 이후 학교에서는 제출된 신청서 중 해당 기수에 개설 가능한 프로그램 개수와 신청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신청서를 선정한 뒤, 해당 신청서를 인근 대학과 대학 학과 사무실에 공문 형태로 발송하여 강좌 진행을 희망하는 전문가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변경 운영방식(안)의 기대 효과

- ① 학생들의 진로 희망, 관심 분야와 프로그램 개설 강좌 간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음.
- ② 학생들의 협동을 자극할 뿐 아니라,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
- ③ 대외적으로는 인근 대학에 본교에서 진행하는 학생 진로계발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
- ④ 다양한 관심 및 신규 수요 예측을 위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킴.
- ⑤ 학생들이 사전에 인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강좌 개설 이후 폐강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기타 내용

- 동대문구청 지원금 고려 2018-4기에는 최대 5개 프로그램 개설 예정이므로, 이 중 변경 운영방식(안)을 활용하여 최대 3개 강좌를 시험개설하려 함.
- 11월 초·중반까지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뒤, 11월 중반 이후 인근 대학에 강사 모집 공문을 발송할 계획임.
(강좌 안내 및 수강신청 12월 중, 강좌 진행은 1월 이후)
- 개설희망주제를 신청하여 선정 및 개설까지 이뤄진 강좌가 있을 경우 해당 강좌 수강에 우선권을 부여하되, 강좌 개설 일정은 강사의 재량에 따르므로 일정 상 수강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음.